

LG화학, 영업부진 극복 쉽지않다!

동양증권, 비수기에 수요회복 기대난 ... 신영·대신은 긍정적 평가

LG화학은 2011년 3/4분기 영업실적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3/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5조8859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0월20일 발표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243억원으로 7.0%, 순이익은 5116억원으로 14.6% 감소했다.

신영증권은 LG화학의 3/4분기 영업이익이 2/4분기보다 7% 감소했지만 불황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영증권 오정일 연구원은 “4/4분기 영업이익은 6602억원으로 3/4분기보다 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수기임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높은 성장을 보이고 2012년 이후에는 신규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증권 안상희 연구원도 “3/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4/4분기에는 비수기이지만 약 75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1년 증설이 완료되고 2012년 증설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의 손익분기점을 3/4분기에 도달해 2012년 이후 수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5만원을 유지했다.

반면, 동양종합금융증권은 LG화학 주가가 4/4분기에 30만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바닥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4/4분기가 전통적 비수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수요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워 3/4분기 주가 약세의 원인이었던 영업실적 모멘텀 약화를 단기에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10년 중반부터 투자가 집중됐던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LCD(Liquid Crystal Display) 유리 양산설비 가동으로 2012년부터는 현금창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